

# 김유정과 아리랑

유 인 순\*

1. 들어가는 글
2. 김유정과 아리랑의 만남
3. 김유정 문학 속 아리랑의 의미·역할·영향관계
4. 나오는 글

## 〈국문초록〉

김유정은 <아리랑>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그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하나로 보고 동시에 자신을 그들 속의 한 인자로 인식했다. 김유정은 그의 수필과 소설, 잡지사의 설문지 속에 지속적으로 우리 민요와 아리랑을 소개하고 그 노랫말을 삽입했다. 본고에서는 김유정과 아리랑의 만남, 김유정의 아리랑관(觀), 김유정 작품에 삽입된 아리랑의 역할과 영향력 등을 살펴보고 했다.

김유정 수필 속에 삽입된 아리랑은 작품을 풀어나가는 발구름판으로,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향토적인 정조를 맛보도록 하고 또 일제만행을 고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소설 <만무방>, <안해>에 삽입된 아리랑은 일제 식민시대에 대한 고발 및 작가의 저항정신을 독자에게 교묘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제로 기능한다.

김유정문학 전반에 끼친 아리랑의 영향은 우리 문학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정조(情調)’를 인식하게 하고, 생에 집착한 열정을 통해 인간 생명

---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에 대한 존엄성을 갖게 했으며 김유정 소설의 문체적 음성을 획득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아리랑 사설 속에 내재된 해학을 체득하여 김유정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립시켰다.

**주제어** : 민요, 정조, 해학, 발구름판, 저항정신, 문체적 음성

## 1. 들어가는 글

우리의 情調

이 시대의 풍상을 족히 그리되 혈맥이 통하여 제물로는 능히 기동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천착하는 곳에 우리의 숙제가 놓여있는  
듯……(후략)……<sup>1)</sup>

위의 인용문은 새로운 문학의 목표를 묻는 잡지사의 질문에 대한 김유정의 대답이다. 김유정은 우리 문학은 ‘우리의 정조와 교배(交配)’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무슨 레코드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는 ‘육자배기 같은 건 자다 들어도 싫지 않습니다’<sup>2)</sup> 하고, 웃은 ‘일상 조선옷을 입습니다.’<sup>3)</sup> 라고 답한다.

여기에서 김유정이 말하는 정조(情調)는 단순히 감각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사전적 정의보다는, ‘찰나적 감각성을 벗어나는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여과된 정서’<sup>4)</sup>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유정이 생각하는 ‘우리의

---

1) 김유정 『風林』 제1집 1936.12. 전신재 편, 『원본김유정전집』, 도서출판 강, 2007, 479쪽. 이후부터 전신재 편, 『원본김유정전집』은 『원본김유정전집』이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

2) 김유정 『조광』 1937.2. 『원본김유정전집』, 481쪽.

3) 위의 책, 482쪽.

4) 허혜정, 「서정주 김소월시론을 통해본 현대시와 전통-감각과 정조론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 56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322쪽.

정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편의상 이를 음악에 한정했을 때, 김유정이 자다 들어도 싫지 않다고 한 노래는 우리의 민요였다. 수필가 김소운 선생은 조선민요에 조선정신문화의 순수성과 민족공동체의 속성, 잃어버린 것의 속성이 들어 있고, 무엇보다 민요는 ‘벌거숭이 야생아’이고 ‘우리의 이마에 흐르는 땀’, ‘오늘 우리의 입으로 토한 입김’<sup>5)</sup>이라고 했다. 실로 민요는 우리의 원형을 그대로 가진 ‘벌거숭이 야생아’이고 우리의 ‘땀과 입김’임에 틀림없다. 그 가운데서도 아리랑은 한국민요 중에서 그 종류와 가사가 가장 많은 민요 중의 민요<sup>6)</sup>, 한국과 한민족의 상징<sup>7)</sup>, 우리의 대표 민요이고 민족정서<sup>8)</sup>, ‘한국인의 자화상’<sup>9)</sup>이다.

김유정은 그의 소설작품과 수필작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민요와 아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작품 속에 아리랑의 사설을 소개한다. 실로 김유정은 우리 민요, 그중에서도 아리랑을 통해서 우리 문학의 목표라고 생각한 우리의 정조를 육화(肉化)시키려고 한 것일까.

본고에서는 김유정과 아리랑의 만남, 김유정 소설 및 수필작품 속에 나타난 아리랑을 찾아보고 아리랑에 대한 김유정의 인식, 김유정 문학에서 아리랑의 역할과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김유정과 아리랑의 만남

문학에는 인생과 시대가 스며들어 삶의 의미와 진리를 들려주는 것이

- 
- 5) 김소운, 『諺文朝鮮口傳民謠集』, 제일서방, 1933. 서론에 나온 말, 위에서 인용한 말들은 김홍련,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아리랑의 확산과 의미변천」, 『음악과 민족』, 민족음악학회, 2006, 238-240쪽에서 발췌, 재인용한 것임.
  - 6) 박민일, 『한국아리랑문학연구』, 강원대출판부, 1989, 271쪽.
  - 7) 박소현, 「세계음악 <아리랑>을 통한 몽골과의 교류」, 『몽골학』, 한국몽골학회, 249쪽.
  - 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 6. 18.
  - 9) 박민일, 앞의 책, 277쪽에서 박민일 교수는 아리랑을 언어로 형상화한 ‘삶의 소리’이고 ‘生生化化하기 위한 소리’라고 했다.

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맘과 입김인 민요 및 아리랑이 삽입되어진다면 그때 문학은 독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게 될까.

먼저 김유정의 지인들이 증언하는 김유정과 민요, 그리고 아리랑과의 관계를 찾아보기로 한다.

### (1) 김유정과 우리 소리의 만남

김유정에게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의 조카 김영수는 김유정이 휘문고보 시절 하모니카를 잘 불어서 단성사 개관 몇 주년 기념행사 때 단성사 무대에 올라가 하모니카 독주를 했었음을<sup>10)</sup>, 소설가 이석훈은 김유정의 하모니카 연주를 방송국 어린이 시간에 소개 시키려 했던 일, 이를 위해 악보를 사서 연주연습을 했었다고 증언 한다<sup>11)</sup> 그 외에도 김유정은 바이올린에도 관심을 갖고 바이올린 연주도 했었다고 한다.<sup>12)</sup> 이런 사실로 미루어 김유정의 어린 시절 음악에 대한 관심은 다분히 서양적인 것에 있었고 서양악보를 읽을 수 있는 수준에도 달해 있었다.

김유정의 우리소리에 대한 관심은 그의 첫사랑이었던 명창 박녹주에게서 비롯된다.

①“김형! 우리 소리합시다.”

하고 그 척 척 불어 올라올 것 같은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강원도

---

10) 김영수, 「김유정의 생애」, 『김유정전집』 하, 김유정전집 편찬위원회, 1994, 314-315 쪽. 이후 이 책은 『김유정전집』이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

11) 학생 시절 김유정은 하모니카 연주를 남의 지도를 받거나 레코드를 들으면서 배웠다고 한다. 한편 방송국 출연을 위한 하모니카 레퍼토리를 위해서 김유정이 악보를 사서 하모니카 연주연습을 했다. 이때 연습한 곡들은 <키스멧트>, <오리엔탈 댄스>, <아를르의 여자>, 헨델의 <라르고> 등이다. 김유정은 서양악보를 읽고 연주할 수 있는 음악 실력을 갖고 있었다.

이석훈, 「유정의 면모 편편」 위의 책, 403쪽에서 요약함.

12) 김영수, 앞의 글, 314쪽.

아리랑 팔만 구암자를 내뱉는다. 이 유정의 강원도 아리랑은 바야흐로 천하일품의 경지다.

나는 소독제(消毒箸)까락으로 추탕 보시기전을 갈기면서 장단을 맞춰 좋아하는데<sup>13)</sup>

②(전략).....이를테면 유정의 애인이 출연을 하는 연주회에는 꼭 그가 출석하였고, 또 노래를 부르는 방송에는 의례 귀를 기울였으며 때로는 요정에서 제법 그 늙은 기생과 더불어 주연을 같이 하였다. ....(중략)..... 그리하여 그는 그 때 전문학교 시절의 발랄한 몸이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새 이지의 감동력도 없이 그저 우울하고 초조하고 비관적이어서 무슨 남도 소리를 한답시고

“문경의 새재는 으 응 으응”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오대야 구부구부 눈물이다”

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하면서 이따금 당치도 않는 목청을 뽑고 했다<sup>14)</sup>.

인용문 ①은 소설가 이상이 술좌석에서 강원도 아리랑을 부르던 김유정의 모습을 소설화한 것이고, 인용문 ②는 김유정 사후 안희남이 박녹주를 짝사랑하던 시절의 김유정의 모습을 역시 소설화한 것이다.

김유정이 처음 박녹주를 만난 것은 휘문고보 5학년 때인 1928년 가을, 박녹주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정리하고 연희전문 입학 두달 만에 제명 처분 당한 뒤 춘천으로 내려 온 것이 1930년 봄으로 추정된다.

박녹주는 박기홍 송만갑 김정문 등을 스승으로 동편제의 남성적 소리빛깔을 내는 명창<sup>15)</sup>으로 알려져 있다. 박녹주는 1927년부터 1931년까지 단

13) 이상, 「김유정- 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이상소설선집』 1, 갑인출판사, 1977, 227쪽. 이 작품은 1939년 5월 『청색지』에 게재되었던 것을 갑인출판사에서 재수록했다.

14) 안희남, 「검허-김유정전」, 『김유정전집』 하, 278쪽.

15) 채수정, 「명창 박록주의 소리 세계」, 『판소리연구』 제17집, 판소리학회, 2004, 402쪽.

가<한송정>을 비롯하여 판소리 <춘향가><심청가>등을 취입했다.<sup>16)</sup>

인용문②에서 안희남의 기억은 사실에 바탕 한 것이었고, 당시(1928-1931) 김유정이 방송에서 들었다는 박녹주의 노래, 또 박녹주의 연주회에서 들은 노래들은 이 무렵 레코드로 취입한 노래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녹주가 취입한 곡들은 전문가창가가 부를만한 것이고 비전문가창가인 김유정은 당시 일반인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류, 아리랑류에 관심을 가졌다.

술좌석에서 김유정이 구성지게 불렀다는 ‘강원도 금강산 일만 이천 봉팔만 구암자-’하는 사설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정선 엮음 아라리>의 한 대목으로 인생의 애환과 욕망을 엮어나간 곡이다. 또 김유정이 ‘문경의 새재는 으 응 으응 -오대야 구부구부 눈물이다’고 부르던 아리랑은 그 사설 내용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담고 있기에 당대의 명창을 짝사랑하던 청년 김유정에게는 서러운 심사를 담아 아내기에 적절한 곡이었을 것이다.

김유정은 31편의 소설<sup>17)</sup>과 18편의 수필작품을 남겼다. 김유정은 그의 수필과 소설에서 우리 민요와 아리랑에 대한 그의 애정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다음 장에서는 김유정 작품에 나타난 민요 및 아리랑의 흔적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

16) 이 무렵 박녹주가 레코드로 취입한 곡들은 다음과 같다.

1927년 일동축음기 회사에서 단가 <한송정>, <소상팔경>, <추풍감별곡>을, 1929년 콜럼비아 레코드사에서 단가 <만고강산>, <추월강산> 상하, <대관강산>, 판소리<춘향가 춘향집 가르치는데>, <심청가 심청수제> 상하, <춘향가 사랑가, 정자노래>, <심청가 선인수거> 등을, 1931년에는 <동풍가> 상하, <성주풀이> <농부가>를 비롯 판소리 <심청가>를 취입했다.

이보형, 「박록주 명창의 음악예술 세계」, 명창 박록주 선생 재조명 학술세미나 자료집, 구미문화연구회, 2000. 9. 23.

17) 김유정의 소설작품은 「술」과 「정분」을 퇴고와 초고본으로 묶어 동일작품으로 보고, 또 최근 발굴된 김유정의 「홍길동전」까지 합하여 모두 31편으로 한정한다. 「홍길동전」은 1935년 10월 10일 『新兒童』 제 2호에 발표된 작품이다. 한편 김유정의 수필작품은 편지 일기 포함하여 18편으로 한정한다.

## (2) 김유정 소설 작품 속의 아리랑

김유정의 작품 가운데 우리 소리를 알리고 있는 작품은 단연 농촌배경 소설이다. 예외로 도회지 배경 소설인 「두꺼비」에서 1인칭 화자는 ‘어디선지 울려오는 가냘픈 육자배기’<sup>18)</sup> 소리를 들으며 회상장면으로 들어간다. 이 작품에서 육자배기는 장면전환용 배경음악 역할을 한다.

김유정의 농촌배경 소설에서 우리 소리에 대한 언급은 「산골나그네」의 아리랑과 <권주가>, 「총각과 맹꽁이」의 아리랑, 「술」과 「떡」의 아리랑타령, 「만무방」의 아리랑과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하는 <노랫가락>, 「안해」의 춘천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흥타령>, <이팔청춘>, <노랫가락>, 그리고 신식창가로 <희망가>와 동요 들이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리랑 사설이 삽입된 것은 「만무방」과 「안해」 두 작품뿐이다.

「산골나그네」와 「총각과 맹꽁이」에서 <권주가>나 아리랑은 술좌석의 흥겨운 분위기를 표출하기 위해 곡목만 사용된다. 「술」에서의 아리랑타령은 근식이 아내를 버리고 들병이를 선택하는 중에 나온다. 아내가 돈도 벌 줄 모르고 <아리랑타령>도 할 줄 모른다는 데서 아내는 평생 반려자의 자리에서 탈락된다. <아리랑타령>이 인생의 멋과 맛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떡」의 떡희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무능을 알보는 친구들 앞에서 무안함을 감추기 위해 아리랑 타령을 부른다. 아리랑은 유희의 분위기를 고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쓰라림을 달래주거나 인간의 맛과 멋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만무방」은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유랑농민이 되고 이산가족이 되고, 전과 4범이 된 응칠이가 아우 응오를 찾아온 가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다. 건실한 농군 응오가 자기 논이 벼를 자기가 훔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불합리한 세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응오의 논에서 벼를 도난당했다는

---

18) 김유정, 「두꺼비」, 유인순 편, 『동백꽃』, 문학과지성사, 2005, 285쪽.

이후 이 책은 『동백꽃』이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

사실을 알게 된 응철은 범인을 잡기 위해 궁리하고 혐의자를 탐문하며, 주막집과 아우의 집을 거쳐 개울가 둔덕으로 나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아리랑을 부른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가세  
증기차는 가자고 원고동 트는데 /정든님 품안고 낙누낙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띄여라 노다가세  
넬갈지 모래갈지 내 모르는데 옥씨기 강냉이는 심어 뭐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아리랑 띄여라.....<sup>19)</sup>

응철은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30년 전 풍요로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살인강도 사건을 떠올린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놈을 다리를 꺾어놓고 내일쯤은 봐서 설렁설렁 뜨는 것이 옳은 일’<sup>20)</sup>이겠다고 생각한다. 곧 아리랑에서 증기차가 가자고 원고동 트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 자신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인식한 것이다.

응철이 부른 아리랑은 ‘전렵(또는 후렵, 고정부) + 사설(변화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응철이 부른 아리랑에는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유랑 농민의 고통이 배어 있다. 옥씨기 강냉이를 심을 수 없게 언제 갑자기 떠나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 정든 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눈물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농민의 비애가 아리랑 안에 그대로 배어있는 것이다. 1915년 박문서관에서 발간한 『증보신구잡가』에서 이 노래의 사설 1절과 유사한 부분이 보인다.

<아르렁타령>

……(1-3절 생략)……

4. 아르랑 고개다 정거장을 짓고 전기차나 오기를 기다린다

---

19) 김유정, 「만무방」, 『동백꽃』, 105쪽.

20) 위의 소설, 106쪽.



아르랑 아르랑 아라리오 /아르랑 띄여라 노다가세

5. 전기차는 가자고 원고동을 트난데 / 정든님 잡고서 락루한다

아르랑 아르랑 아라리오 /아르랑 띄여라 노다가세 <sup>21)</sup>

<아르렁타령>에서는 ‘아리랑’ 대신 ‘아르렁’이, ‘증기차’ 대신 ‘전기차’가 들어가 있고 변화부인 사설이 앞에, 고정부인 후렴이 뒤에 배치된다. 여기서 전기차는 전차를 가리킨다.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을 짓고’ 하는 대목으로 보아서는 농촌이 아닌 서울의 어디쯤으로 보인다.<sup>22)</sup>

이에 비해 「만무방」에서는 증기차 곧 증기기관차가 원거리 이동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문제는 <아르렁타령>이나 <아리랑타령>에서 정든님과 시간의 방해하는 것이 전기차 또는 증기차이고, 창자는 어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은 위기감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무엇에서 연유한 위기감인가. 한국에서 전차는 1898년 서울의 청량리-서대문 간에 처음 등장했다<sup>23)</sup>. 한편 한국 최초의 철도 개통은 1899년 9월 18일 노량진- 제물포 구간<sup>24)</sup>에서 이루어졌고 이때 열차는 증기기관차였다. 전기차와 증기차가 거의 같은 무렵에 운행을 시작한 것이다.

<아르렁타령>에서 창자(唱者)의 위기감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인한 일련의 의병활동에서 쫓기게 되는 사람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응칠이 부른 <아리랑>은 1930년대 동양척식의 횡포로 빗쟁이가 되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식민지 백성이기에 겪어야 하는 고난을 노래로 엮은 것이다. 김유정의 「만무방」은 최소한의 먹거리도 마련하지 못해 유랑인이 되고 가족해체의 아픔과 전과자로 전락한 응칠, 제 논의 벼를

21) 박민일, 『자료집 II: 아리랑』, 강원대 출판부, 1993, 157쪽.

22) 장거리 운행하는 전기차가 이용된 것은 금강산 철도에서 였다. 금강산행 전동차는 창도에서 내금강까지 운행되었는데 이는 1931년의 일이다.

23)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9j0756a](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9j0756a)>

24) 철도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제가 흠쳐야 하는 응오의 고통과 울분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에 삽입된 아리랑은 응칠 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던 식민지 백성 모두의 고통과 울분을 대변한다.

「만무방」에서 보이는 또 다른 노래는 밤 깊어 주막에서 들려오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sup>25)</sup> 라는 <노랫가락>이다. 그러나 이 노랫가락은 아리랑의 전형<sup>26)</sup>에 이르지 않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김유정의 「안해」는 먹고 살기 위해 아내가 들병이 생활을 하려하고 이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들병이의 기본소양을 교육하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춘천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홍타령>, <이팔청춘>, <방아타령>를 비롯하여 당시 유행하던 신식창가와 동요까지 다양한 노래장르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중 사실이 직접 보이는 것은 춘천아리랑 뿐이다.

내가 밤에 집에 돌아오면 년을 앞에 앉히고 소리를 가르치겠다.  
우선 내가 무릎장단을 치며 아리랑 타령을 한 번 부르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춘천아 봉의산아 잘 있거라 신연강 배타면 하직이라, 산골의 계집이면 강원도 아리랑쯤은 곧잘 하려만 년은 그것도 못 배웠다. 그러니 쉬운 아리랑부터 시작할 밖에<sup>27)</sup>

춘천 아리랑은 흔히 <춘천의병아리랑>으로 불리는 3종류- <성익현의 춘천 아리랑>, <육형신의 춘천 아리랑>, <김정삼의 춘천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성익현, 김정삼의 춘천 아리랑 제 1절 사설

---

25) 김유정, 「만무방」, 『동백꽃』, 107쪽.

26) 아리랑의 전형은 첫째, 고정부인 전렴(혹은 후렴)에 반드시 ‘아리랑’이란 기층어나 확대형 또는 변이형인 ‘아리 아리’나 ‘아리 쓰리’가 포함 되어야 하고, 둘째 아리랑의 보편적 가락인 공통적 음악적 요소가 들어가야 하고 셋째, 지역사회에서 널리 인지되어 다수인에 의해 전승된 것이어야 한다.

김기현, 「아리랑 노래의 형성과 전개」, 『퇴계학과 유교문화』,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146-147쪽 요약, 정리.

27) 김유정, 「안해」, 『동백꽃』, 222쪽.

이 <안해>에 소개된 사설과 일치한다.

<성익현의 춘천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너머로 날 냉겨주게//-----

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 있거라/ 신연강 배터가 하직일세//

우리나 부모가 날 기르실제/ 성대장 주려고 날 기르셨나//

귀약통 납날개 양충을 메고/ 별업산 대전에 승전을 했네//<sup>28)</sup>

성익현은 관군출신으로 춘천의병에 가담, 의병 선봉장이 되어 경춘도 계인 서면 주길리 뒷산인 별업산을 점거하고 일본군 토벌대와 일대접전을 벌였으나 역부족으로 패퇴했다. 이것이 ‘별업산 전투’(1896년)로, 춘천 아리랑은 이 무렵 불리어지기 시작했다.<sup>29)</sup> 현실에서는 성익현의 의병대가 일본군 토벌대와 싸워 패배했으나 노래에서는 ‘별업산 대전에 승전을 했네’로 되어 있다. 노래를 통한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김정삼의 춘천 아리랑>

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 있거라/ 신연강 배터가 하직일세//

싸리재 아흔아홉구비 우리 복병/삼악산아 우리 군대를 보호해다우//

동녘에 비친 달아/ 우리 군대 명//

잊지마라 명예도 지위도 버리고 /이 강산 굳게 지켜 싸워다오//

병오(1906)5월 20일 金正三書<sup>30)</sup>

<김정삼의 춘천 아리랑>은 관군출신의 김정삼이 의병이 되어 춘천

---

28) 박민일, 『강원도 아리랑』, 춘천문화원, 1993, 162쪽.

29) 위의 책, 122-123쪽.

30) 위의 책, 164쪽.

싸릿재 의병전투에 참전했을 때 지어 부른 노래다.<sup>31)</sup>

이들 춘천의병장 아리랑 외에 또 다른 춘천아리랑이 있다. 1923년 11월 『개벽』 41호와 1928년 10.11 「중외일보」 및 1943년 발간된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곡이다.

<춘천 아리랑>

춘천아 봉의산 널 잘 있거라 / 신연강 배머리 하죽일다.//  
춘천의 봉산(鳳山)은 명산인데/ 부내팔동(府內八洞)이 개화를 한다.//  
삼학산 밑에다 신작로 내고/자동차 바람에 다 놀아난다.//  
양구 낭천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저 처녀야//  
걸대나 띄웠은 다 저치고/ 속에 나 속대를 나를 주게//<sup>32)</sup>.  
..... (후략).....

위의 아리랑은 춘천 의병장 아리랑으로부터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불린 것으로 본다. 춘천 아리랑 세 작품 모두 사설의 서두부분 고정부로 들어간 것이 ‘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 있거라/ 신연강 배머리 하죽일다’로 전개된다. 김유정은 이 세 편의 노래 가운데 어떤 곡을 불렀을까.

김유정의 가계와 춘천의병과의 관계를 보기로 하자. 1895년 명성왕후가 시해되자 춘천은 의병 5천여 명이 모인 을미의병의 본고장이 된다. 1907년에는 고종 강제 폐위사건으로 하여 정미의병 봉기가 있었다. 이들 을미의병과 정미의병의 중심에 화서학파가 있었다. 화서학파의 제2종주는 김평묵이었다. 김평묵은 같은 청풍김씨 문중이었던 김유정의 증조부 김병선의 초빙으로 춘천에 자리를 잡고 김병선의 아들 김익찬의 훈학을 맡았다. 김익찬은 김유정의 조부다. 을미의병 및 정미의병이 봉기했을 때 여기에 참여한 선비 대부분은 김평묵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았다<sup>33)</sup>.

31) 위의 책, 124쪽.

32) 위의 책, 160쪽.

33) 김영기, 「김유정의 가문」, 전신재 편 『김유정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았을 때 김평묵과 친교가 깊었던 김유정 가계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위기감을 느껴,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집을 사고 서울로 이사한다.

한편 김유정이 문단에 공식 등단하기 전인 1933년, 김유정의 「산골나그네」를 『제1선』 3월호에 발표시켜준 이는 『개벽』의 편집인이며 발행인이었던 춘천출신 언론인 차상찬이었다<sup>34)</sup>. 김유정의 「금파는 콩밭」은 『개벽』 1935년 3월호에 발표되었다. 차상찬은 언론인으로 ‘총대신 붓을 든 독립군’이었다. 김유정은 증조부 김병선과 화서학파의 제2종주 김평묵에서 비롯된 의병대와의 관계, 언론인 차상찬씨와의 교류 등을 통해서 일찍이 일제의 만행에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김유정의 소설 「만무방」, 「안해」, 그리고 수필 「강원도 여성」에 아리랑 사설을 삽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김유정의 「안해」에서 첫 소설만 인용된 춘천 아리랑의 경우, 그것은 <춘천의병 아리랑>이었을 것으로 본다.

### (3) 김유정 수필작품 속의 아리랑

수필은 소설에 비해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하고 작가의 인생관과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학 장르라고 한다. 실로 김유정의 수필에서는 김유정의 육성이 가장 짙게 들려온다.

김유정의 수필 「조선의 집시」<sup>35)</sup>에서는 지주와 빚쟁이에게 수확물을 털리고 들병이로 나설 수밖에 없는 농민부부의 애환을 소개하면서 들병이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으로 아리랑으로부터 <양산도> <방아타령> <신고산타령>에 <배따라기><sup>36)</sup>, 여기에 <희망가>까지 노래 목록

---

아시아 문화연구소, 1997, 19-21쪽 요약.

34) 최경식, 「강원인 차상찬 바로 알기 2- 언론인으로서의 차상찬」, 『강원도민일보』, 2012.4.25.

35) 김유정, 「조선의 집시」, 『원본김유정전집』, 414쪽.

36) 위의 글, 415쪽.

에 올려놓고 있다. 「오월의 산골작이」<sup>37)</sup>에서는 춘천지역에 <소모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어떠한 부인을 마지할까」에서는 ‘이몸이 죽어져서 무엇이 될고’로 시작되는 성삼문의 시조 한 수까지 삽입된다. <sup>38)</sup> 이는 김유정이 평소 우리 소리·민요와 시조 등에 관심이 깊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유정 수필에서 아리랑 사설이 직접 삽입된 것은 수필 「넙히 푸르러 가시든 님이」<sup>39)</sup>에서이다. 이 수필에서 작가는 한산한 시골생활을 부러워하는 도시인에게 농촌의 피폐한 실상을 알린다. 도시인이 시골생활을 부러워하는 것과 달리 굶주린 농민들은 쌀과 옷과 돈이 ‘물밀 듯 질번거릴 법한 서울살이’를 동경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유정은 다음과 같은 아리랑의 사설을 삽입한다.

① 앞히 푸르러 가시든 님이/ 백설이 혼날려도 아니 오시네<sup>40)</sup>

② 잘 살고 못살긴 내 분복이요/ 하이칼라 서방님만 얻어주게유<sup>41)</sup>

③ 앞히 푸르러 가시든 님/ 백설이 혼날려도 안 오시네<sup>42)</sup>

인용된 사설 ① ③은 같은 내용이다. ①은 수필의 맨 앞에 ③은 수필의 결말 부분에 배치했을 뿐이다. 김유정은 사설 ①로 수필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강원도 농군이 흔히 부르는 노래의 하나’임을, 화창한 봄날 싱숭거리는 심사를 소리로 풀어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설 ②는 지난겨울 가난 속에서 쌓였던 울분과 미래에 대한 초조가 봄을 맞아 폭발, 특히 마음 약한 농촌의 부녀자들에게 그런 증세가 더욱 심해 하이칼라 서방님-

37) 김유정, 「오월의 산골작이」, 위의 책, 426쪽.

38) 김유정, 「어떠한 부인을 맞이할까」, 위의 책, 429쪽.

39) 김유정 「넙히 푸르러 가시든 님이」, 위의 책, 411-413쪽 .

40) 위의 글, 411쪽.

41) 위의 글, 412쪽.

42) 위의 글, 413쪽.

‘머리에 기름 바르고 향기 피는 매끈한 서방’이 아닌, ‘돈 있고 쌀 있고 또 집 있고, 이렇게 유복한 서울 서방님’<sup>43)</sup>을 꿈꾸는 것 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던 농촌부녀들이 결국은 농촌을 탈출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그 결과는 농촌에 노총각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리라는 염려를 아끼지 않는다.

김유정은 1936년 2월 구인회 기관지 『시와 소설』에 자전소설 「두꺼비」를 발표했다. 이 작품은 짝사랑의 열병이 지나간 다음의 후일담을 다룬 소설이다. 같은 무렵인 1936년 월간지 『중앙』 2월호의 「문인끼연실」에는 이태준 심훈 박태원 이기영 안희남 백철 정지용 같은 문인들이 담배 또는 자신의 요즘 생활이나 생각에 대한 것들을 소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유정은 거두절미하고 다음의 사실만을 소개한다.

① 팔라당 팔라당 수갑사 땡기/ 곤때도 안 물어 쥔 애비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띠어라 노다가게 //

×

② 시에미 죽어선 춤추드니/ 방아를 찢 적에 생각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띠어라 노다가게

위의 사실 ①은 남녀간의 애정문제를, 사실 ②는 일손이 급한 농촌 아낙의 고단한 삶을 노래한다. 1936년 2월이라는 시간적 측면을 고려해서 볼 때, 「문인끼연실」에 소개된 아리랑에서 사실 ①은 이제는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첫사랑의 상처가 파헤쳐져 다시 고통 속에 있음을, 사실 ②는 보리방아를 찢을 때에 시어머니가 한 몫 일을 맡아 주었던 것처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아쉬운 전업작가 김유정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이 무렵 김유정은 폐결핵이 악화되어 신당동에서 셋방살이 하는 형수댁에 얹혀살고 있었다.

『시와 소설』속표지에는 구인회 회원명단, 바로 그 옆 페이지에 9인의

---

43) 위의 글, 413쪽.

에피그램이 삽입된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진지한 어투로 삶과 문학과 현대인의 고민과 예술가로서의 다짐을 토로하는 곳에서 김유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별거승이 알몸으로 가시밭에 둥그러져 그 님 한 번 보고지고<sup>44)</sup>

이 한 소절은 다른 회원들의 지극히 현학적이고 진지한 토론에 비교해 볼 때 생경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문학이란 가시밭과 같은 세상 속에서 거짓 없이 알몸으로 껴안아야 할 님과 같은 존재임을 아리랑 사설에 담아 토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유정은 수필 「강원도 여성<sup>45)</sup>」을 통해서 다양한 아리랑 사설들을 이용하여 강원도 여성의 특성을 교양이나 예의와는 거리가 먼, 실박하고도 원시적인 여성미로 그려낸다. 이 작품에 삽입된 아리랑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피어라 노다가게//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 팔만구암자, 재재봉봉에/  
아들 딸 날라고 백일기도두 말게우 / 타관객리 나슨 손님을 팔세  
두마라.//<sup>46)</sup>
- ② 논밭 전토 쓸만한 건 기름방울이 두둥실/ 계집애 쓸만한 건 직조  
간만 간다<sup>47)</sup>
- ③ 아주까리 동백아 흐내지 마라 / 산골의 큰 애기 떼 난봉난다.<sup>48)</sup>
- ④ 네가두 날만치나 생각을 한다면 / 거리거리 로중에 열녀비 스다.<sup>49)</sup>

---

44) 김유정, 구인회 편, 『시와 소설』, 창문사, 1936, 3쪽.

45) 김유정, 「강원도 여성」, 『여성』, 조선일보사, 1937.1.

46) 『원본김유정전집』, 444쪽.

47) 위의 글, 445쪽.

48) 위의 글, 446쪽.



⑤ 네 팔짜나 내 팔짜나 잘 먹구 잘 입구 소라반자 미단이 각장장판  
 셋별같은 늦요강  
 온앙금침 잔모벼개에 깔구툇구 잠자기는 삶은 개다리 뒤틀리듯  
 뒤틀렸으니, 웅틀봉틀  
 명석자리에 깊은 정이나 드리세.<sup>50)</sup>

인용된 사설 ①과 ⑤는 각각 「강원도 여성」맨 앞과 맨 뒤에 배치되어 있다. 사설 ②③④는 작품 가운데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열시키면서 강원도의 산천, 강원도에서의 삶, 강원도 여성의 삶과 그들의 심성과 태도 등에 대한 것을 그려나간다.

김유정은 사설 ①을 인용하고, 여기에서 ‘그 땅의 냄새를 맡을 수’<sup>51)</sup>있고, 수려한 산천과 표표한 산맥과 맑은 냇물, 첩첩 산록(山麓)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강원도 아리랑> 속에는 강원도의 산천과 정서, 생활동정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사설 ②에서는 농토가 공장 부지로 변하고, 방직공장 직공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시골처녀를 통해 농업사회가 근대산업사회로 변화하는 중이지만 아직 강원도에는 그런 문화의 손길이 닿지 않아 여성들은 순진미를 지닌 ‘실직한 원시적 인물’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산골에서 살아온 처녀들이 도시낭군을 동경하는 마음은 때로 일탈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사설 ③으로 표현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낭군에 대한 동경만으로 애를 태우는 답답한 마음이 사설 ④에서와 같은 애소(哀訴)로 나타난다. 사설 ⑤는 김유정이 수필의 말미에 배치한 엮음 아라리의 한 부분이다. 그 어떤 궁핍과 고난의 절정에서도 주어진 현실에 결코 불평하지 않는 강원도 여성의 순직성과 순박성을 아라리 사설로 대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여성」에 들어간 ①-⑤에 걸친 다양한 아리랑 사설을 통해서

49) 위의 글, 447쪽.

50) 위의 글, 447쪽.

51) 위의 글, 444쪽.

우리는 유정이 이들 아리랑을 꿰뚫고 있고 이들을 통해 당대의 시대인식을 철저히 하고 있음은 물론 농민에 대한 애정<sup>52)</sup>이 지극했음을 알게 된다.

다음은 김유정 작품 속에서 아리랑의 의미, 기능, 아리랑이 문학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김유정문학 속 아리랑의 의미·역할·영향관계

김유정 이전 작가 가운데 작품에 민요나 아리랑을 삽입한 작가가 있기는 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은 현진건의 「고향」<sup>53)</sup>이다. 일제시대 동척의 횡포로 고향을 잃은 유랑농민의 아픔을 다룬 이 작품의 말미에 들어간 아리랑 사설은 곧 당시의 시대상황과 작품주제를 표출시켜 놓은 것이다. 그 외에, 채만식의 「팔려간 몸」<sup>54)</sup>에서는 육자배기 한 구절이, 이태준의 「패강냉」<sup>55)</sup>에는 <방아타령>과 <상사별곡>의 사설이 한 구절씩 삽입되고, 안희남의 「남풍」<sup>56)</sup>에는 흥타령이 삽입된다.

이에 비해 김유정은 그의 소설과 수필, 또는 잡지사 설문 등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 민요와 아리랑을 소개했다. 특별히 소설 「만무방」과 「안해」,

52) 유명희, 「들병이와 아라리」, 『한국의 웃음문화』, 김유정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소명출판, 2008, 532쪽.

53) 현진건의 「고향」은 1926년 1월 4일 「그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발표, 이후 11편의 단편을 묶은 『조선의 얼굴』(1926. 3월 30일 글벗집)에 수록된 작품이다. 인용된 아리랑은 다음과 같다.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 말마디다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 인물이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현진건, 『현진건 전집 4: 조선의 얼굴』, 문학과비평사, 1988, 236쪽.

54) “가네 가네 하더니마는/ 님이 나를 버리고 정말로 가네”. 채만식, 「팔려간 몸」, 1933년 『신가정』 8월호에 발표. 견우가 직녀를 보내며 부른 노래이다. 『채만식 전집』7, 창작과 비평사, 1989, 41쪽.

55) “어 따 조오쿠나 이십 오 현 탄 야월……” 정도만 소개되고, 이어서 ‘에-헛-에-헤 이야 하어-라 우져-라 방아로구나’하는 받는 소리로 끝난다. 이태준 단편집 『석양』, 유인순편, 강원대출판부, 2004, 151-152쪽.

56) “아이고 대고 흥/ 성화가 낫고나 흥/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은 흥/ 제멋에 지쳐서/ 휘느러 젖고나 흥”. 안희남, 『안희남 단편집』, 학예사, 1938, 21쪽.

수필 「넙히 푸르러 가시든 님이」와 「강원도 여성」, 기타 잡지의 칼럼에서 아리랑의 사설을 직접 삽입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리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리랑의 내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아리랑의 의미와 내력

여기(강원도 아리랑- 필자)에서 우리는 우선 그 땅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천이 수려하고, 험준하니만치 얼뜬 성 내인 범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마는 기실 극히 엄숙하고 유창한 풍경입니다.……(중략)…… 정다운 풍경입니다.……그 생활동정이 마치 한 폭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sup>57)</sup>

김유정은 아리랑 사설 속에서 ‘땅의 냄새’와 ‘풍경’과 이들이 만든 ‘정서’와 ‘생활동정’과 ‘시대의 풍상’을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 욕망과 슬픔, 나아가 ‘생애 집착한 열정이 틀진 도량(度量)<sup>58)</sup>’까지도 읽어낸다. 결국 김유정은 아리랑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그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하나로 보고 동시에 자신을 그들 속의 한 인자로 인식한다.

시인 고은 선생은 ‘아리랑’이란 한국인이 모태에서 익힌 단어이고 태아와 함께한 무의미, 아무런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초합리적인 존재이며 자연언어와 인간 언어 사이의 의미해체, 의미를 초월한 언어, 자연언어가 한국인 삶 속에 유배되어온 주술적 언어라고도 했다<sup>59)</sup>. 그는 다시 ‘아리랑’이란 과거의 위엄과 미래의 소진이 포함된 우리의 노래라고 했다. 이는 곧 아리랑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말로

57) 김유정, 「강원도 여성」, 『원본김유정전집』, 444-445쪽.

58) 위의 글, 447쪽.

59) 고은, 「아리랑의 아침」,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아리랑페스티벌 학술대회 기초발제에서 시인 고은 선생의 발표내용을 채록한 것임. (2012.6.15)

수필가 김소운 선생이 아리랑은 우리의 땀과 입김이라고 했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사회의 향토민요 아리랑이 당대 문화 아리랑으로 크게 확장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즉 사당패에 의해 향토민요가 도시로 진출한 것과 영화 <아리랑>의 성공에서 나온 것이 그것이다.<sup>60)</sup> 강등학 교수에 의하면 향토민요 아리랑에는 <아라리>, <엮음 아라리> <자진 아라리>가 있는데, 사당패는 그 중에서도 <아라리>를 재창작하여 <아리랑타령>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대중을 상대로 전문소리꾼이 부르는 통속민요 아리랑이 되었다는 것이다.<sup>61)</sup> 이에 비해 영화 <아리랑>의 아리랑은 본조 아리랑으로 불린다.

한편 아리랑의 전형<sup>62)</sup>에서 첫째 조건은 고정부 전렴(혹은 후렴)에 들어가는 ‘아리랑’ 또는 변이형인 ‘아리 아리’나 ‘아리 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아리랑의 고정부는 대개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를 보여준다.

- 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아라리
- ②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가세 -자진 아리랑
- ③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본조 아리랑<sup>63)</sup>

여기에서 아라리와 본조 아리랑은 전통사회에서 피지배 계급들이 부르던 노래임에 비해 자진아리랑은 도시공간의 여가문화로 공급된 노래, 따라서 유흥적 분위기를 갖고 있다<sup>64)</sup>고 한다. 김유정 작품에 삽입된 아리랑은 이들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 작품에 삽입된 아리랑은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60) 강등학, 「아리랑의 문화형질, 그리고 아리랑의 공적 관리와 사업의 문제」,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아리랑 페스티벌 학술대회 학술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국제비교한국학회 공동주최, 2012, 16쪽.

61) 위의 글, 17쪽.

62) 김기현, 앞의 글, 146쪽.

63) 강등학, 앞의 글, 19쪽.

64) 위의 글, 18쪽.

## (2) 김유정 작품 속 아리랑의 역할

김유정이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명창 박녹주를 만나면서부터였다. 이제 김유정 작품 속에 삽입된 아리랑 사설들의 역할을 살펴보자.

### ① 김유정의 수필과 아리랑: 이야기의 발 구름판 그리고 일제만행 증언

수필 「넙히 푸르러 가시든 님」과 「강원도 여성」에 삽입된 아리랑 사설은 작가로 하여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발 구름판 역할을 한다. 멀리 뛰기 위해서는 발 구름판을 한 번 구르고 몸을 멀리 날려야 하듯 위의 두 작품은 아리랑 사설을 작품 서두에 배치한다.

먼저 아리랑 사설을 배치하고 여기에서 연상되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주제를 형상화한다. 아리랑이 갖고 있는 정조(情調)를 토대로 「넙히 푸르러 가시든 님」에서는 농촌에서의 삶을, 「강원도 여성」에서는 강원도 여성이 가진 특성을 밝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작품의 말미에 아리랑 사설을 배치하여 마무리한다. 아리랑 사설을 작품의 앞,中间的의 여기저기에, 그리고 뒤에 배치하여 작품 전체에 아리랑의 선율과 정조가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 여성」에서, ‘논밭 전토 쓸 만 한 건 기름방울이 두둥실/ 계집애 쓸 만 한건 직조간만 간다’라는 사설이 소개된다. 이 사설을 통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서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농민들의 밥줄인 논밭전토가 산업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유린당하고 있음을, 감언이설에 속아 값싼 노동력 차출에 동원되는 시골 처녀들의 고달픔을 가감없이 증언한다.

### ② 소설 작품에 삽입된 아리랑의 역할: 인물의 행위 선택의 토대 및 저항의지 표출

소설 「만무방」에 삽입된 아리랑은 작품 내 맥락 안에서만 보면 주인공 응철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한 곡조의 노래, 노래를 부른 이후의 행동을 제시해주는 문제해결의 장치로 보인다. 그러나 아리랑 사설자체를 보았을 때 1930년대 유랑농민의 고통과 슬픔이 압축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응칠 형제의 고통, 그 원인이 사회구조의 잘못에 기인함을 아리랑 사설이 증언한다. 아리랑 타령 이후, 응칠의 범인 색출, 의외의 범인 포획, 이후 소도둑으로 나가자는 응칠의 선택은 식민사회체제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의 저항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소설 <안해>에서 변죽만 울리다 끝난 춘천 아리랑의 경우도 그것이 <춘천의병장 아리랑>의 첫 소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김유정 소설에 삽입된 아리랑의 기능은 분명해진다. 김유정은 작품에 인용한 아리랑을 통해서 일제만행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저항의지를 독자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 (3) 김유정 문학 전반에 끼친 아리랑의 영향

아리랑이 김유정문학에 끼친 영향은 다양하다. 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리랑의 정조: 우리의 정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학의 목표**, 김유정이 아리랑 사설이 삽입된 수필과 소설을 발표한 것은 모두 1935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다. 이후 그의 문학관이 들어난 설문 「새로운 문학의 목표」에 답한 것은 1936년 12월 잡지 『풍림』에서이다. 여기서 그는 추구해야 할 문학의 목표가 ‘우리의 정조’라고 대답했다. 이때 그가 생각한 ‘정조’는 단순히 감각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선,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여과된 정서였다. 그는 ‘아리랑’에서 그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냄새’와 ‘풍경’과 ‘정서와 생활동정’과 ‘시대의 풍상’을 듣고 보았다. 김유정은 이들에게서 ‘시대의 풍상과 혈맥’이 통하는 ‘우리의 정조’를 보았던 것이다. 김유정이 아리랑에서 얻게 된 것은 그만의 확고한 문학관(文學觀), ‘우리의 정조’ 찾기였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과 낙관을, 슬픔 속에서 해학을, 갈등 속에서 화해에 이르는 삶을 보았던 것이다.

② **아리랑의 사설(노랫말): 생에 집착한 열정, 삶에 대한 긍정과 의지**  
 ‘아리랑’의 사설에 내포된 ‘생에 집착한 열정’은 김유정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지를 다지게 했다. 김유정 소설의 화자는 등장인물 모두에게 동등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그 어떤 행위에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소낙비」의 춘호나 춘호처, 「안해」의 들병이가 되려는 아내나 그녀에게 들병이 교육을 시키는 남편, 「가을」에서 아내를 팔아 빚을 갚고 아내를 다시 빼돌려 달아난 복만이 부부에게 화자는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정을 이해하고 수긍한다.

### ③ **아리랑의 문체적 음성 -소설의 문체적 음성, 질박하고 건강하고 낙천적인 목소리**

김유정은 ‘아리랑’에서 그 만의 독특한 소설의 문체적 음성<sup>65)</sup>을 얻었다. 김유정의 농촌배경 소설 속에서 들려오는 문체적 음성은 그의 수필에서 들려오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김유정 수필에서의 문체적 음성이 대체로 외롭고 우울하고, 고통을 가까스로 참아내는 조심스런 음성이라면 김유정의 농촌배경 소설속에서의 문체적 음성은 밝고, 건강하고, 질박하고 낙천적인 남성의 그것이다. 「봄봄」의 사위, 「동백꽃」의 총각, 「가을」, 「안해」의 일인칭 화자들이 갖고 있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농촌배경 소설의 삼인칭 화자의 목소리도 역시 건강하고 낙천적이다. 김유정이 갖고 있는 문체적 음성-이들은 박녹주가 지닌 동편제의 남성적 톤과 여기에 다양한 아리랑에서 찾아낸 ‘생에 집착한 열정’이 함께 합쳐진 힘에서 나온 음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 ④ **아리랑의 해학- 김유정문학의 특징, 능청스러움과 해학 김유정이 작가로 등단하기 전에**

즐거 불렀던 아리랑, 작품에 삽입되었거나 잡지사의 설문 등에서 소개

65) 문체적 음성(stylistic voice)이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작품에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것은 작가의 실제 음성과는 다른, 독자의 상상력에서 듣게 되는 목소리이다.

김상태, 「문체란 무엇인가」, 『언어와 문학세계』, 이우출판사, 1989, 78쪽.

하고 있는 아리랑은 아라리(춘천아리랑) 계열과 자진아리랑(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라리 등)이다. 영화 <아리랑>에서 나온 본조 아리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자진아리랑은 ‘아리랑 띄어라 노다가세’에서 보듯 ‘소리 띄우기’<sup>66)</sup>를 통한 유흥과 신명올림에 닿아 있다. 김유정은 자진아라리 속에 녹아 있는 능청스러움과 해학을 아리랑을 통해서 체득한다. 김유정문학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해학을 꼽는다. 김유정은 판소리 뿐 아니라 아리랑 사설이 엮어가는 능청스러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학을 체득하고 이 수법을 그의 문학 작품 가운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4. 나가는 글

시인 고은 선생은 아리랑은 자연언어와 인간 언어 사이의 의미를 초월한 언어라고 했다.

아리랑에 대한 김유정의 인식은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 김유정은 아리랑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그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하나로 보고 동시에 자신을 그들 속의 한 인자로 인식했다.

김유정의 아리랑에 대한 관심은 국창 박녹주에서 비롯된다. 박녹주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여기에서 그는 ‘시대의 풍상과 이어진 ‘우리의 정조’를 발견한 것이다. 김유정은 그의 수필과 소설작품 속에 직접 아리랑의 사설을 삽입하고, 잡지사의 설문지에, 또는 문우들과 나누는 문학관련 에피그램에서 아리랑의 사설 한 구절로 이를 대신하기도 했다.

김유정 수필 속에 삽입된 아리랑은 작품을 풀어나가는 발구름판으로,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향토적인 정조를 맛보도록, 때로는 일제만행을 고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소설 <만무방>, <안해>에 삽입된 아리랑은 일제 만행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 그리고 식민시대에 대한 작가의

---

66) 강등학, 앞의 글, 19쪽.



저항정신을 독자에게 교묘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제로 기능한다.

김유정이 즐겨 불렀거나 들었던, 그리고 작품에 소개한 아리랑들은 모두 아리랑 타령 계열에 속하는 전통 아리랑이다. 김유정문학 전반에 끼친 아리랑의 영향은 우리 문학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정조’를 인식하게 하고, 생에 집착한 열정을 통해 생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 했으며 김유정 소설의 문체적 음성을 획득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아리랑 사설 속에 내재된 능청스러움과 해학을 체득하여 김유정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립시켰다.

## 단행본

- 김유정, 구인회 편, 『시와 소설』, 창문사, 1936.  
\_\_\_\_\_, 『김유정전집』 하, 김유정전집 편찬위원회, 1994.  
\_\_\_\_\_, 유인순 편, 『동백꽃』,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전신재 편, 『원본김유정전집』, 도서출판 강, 2007.  
김상태, 『언어와 문학세계』, 이우출판사, 1989.  
박민일, 『한국아리랑문학연구』, 강원대출판부, 1989.  
\_\_\_\_\_, 『아리랑』, 강원대출판부, 1993.  
\_\_\_\_\_, 『강원도 아리랑』, 춘천문화원, 1993.  
안희남, 『안희남 단편집』, 학예사, 1938.  
이 상, 『이상소설선집』1, 갑인출판사, 1977.  
이태준, 유인순 편, 『이태준 단편집: 석양』, 강원대출판부, 2004.  
채만식, 『채만식전집』 7, 창작과비평사, 1989.  
현진건, 『현진건 전집 4: 조선의 얼굴』, 문학과비평사, 1988.

## 논문

- 강등학, 「아리랑의 문화형질, 그리고 아리랑의 공적 관리와 사업의 문제」,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아리랑 페스티벌 학술대  
회 학술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국제비교한국학회 공동 주최,  
2012.  
김기현, 「아리랑 노래의 형성과 전개」, 『퇴계학과 유교문화』, 경북대 퇴  
계연구소, 2004.  
김영기, 「김유정의 가문」, 전신재 편 『김유정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1997.  
김영수, 「김유정의 생애」, 『김유정전집』 하, 김유정전집 편찬위원회, 1994.  
김홍련,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아리랑의 확산과 의미변천」, 『음악과 민족』,

- 민족음악학회, 2006.
- 박소현, 「세계음악 <아리랑>을 통한 몽골과의 교유」, 『몽골학』, 한국몽골학회, 2009.
- 유명희, 「들병이와 아라리」, 『한국의 웃음문화』, 김유정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소명출판, 2008.
- 이보형, 「박록주 명창의 음악예술 세계」, 명창 박록주 선생 재조명 학술 세미나 자료집, 구미문화연구회, 2000. 9. 23.
- 채수정, 「명창 박록주의 소리 세계」, 『판소리연구』 제17집, 판소리학회, 2004.
- 최경식, 「강원인 차상찬 바로 알기 2- 언론인으로서의 차상찬」, 『강원도 민일보』, 2012.4.25.
- 허혜정, 「<서정주 김소월시론>을 통해본 현대시와 전통-감각과 정조론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제56집, 한국어문학 연구회, 2011.

## 〈ABSTRACT〉

# You-jeong Kim and Arirang

In-soon Yoo  
(Gangwon University)

You-jeong Kim regarded human being and his world in Arirang as a totality and noticed that he himself belonged to it. Kim introduced and inserted the folk songs of the Korean people including Arirang in his own essays, fictions, and questionnaires for some magazines.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the encounter of Kim and Arirang, his view on Arirang, and the role and influence of Arirang on his works.

Arirang adapted in Kim's works is a device to make the narrative conceived; it also has the functions of giving his works a hint of locality and mood and criticizing the brutality of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Arirang alluded in Kim's fictions such as "Manmubang" and "The Wife" brings to the fore his accusation of and resistance to Japanese colonialization.

Arirang helped the author to configure the particularity of Korean collective affect and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its passion. It also made a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Kim's signature stylistic voice as well as his idiosyncratic sense of humor.

**Key words** : folk song, affect, humor, resistance to Japanese colonization,  
stylistic voice

|  |
|--|
|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8.5. / 게재확정일 : 8.15. |
|--|